

승고한 희생과 헌신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고양시 현충공원



6월 1일 의병의 날을 시작으로 현충일, 6·25전쟁, 제2연평해전까지.
6월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넋을 기리는 뜻깊은 달이다.
고양시에도 귀한 생명을 나라에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위한 추모 공간이 있다. 바로 일산서구에 위치한
고양시 현충공원이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영원히 기억될,
영원히 기억해야 할 호국의 발자취를 따라가본다.



1. 태극단 반공 유적지
2. 현충탑 원경
3. 평화의 나무

100만 고양시민의
뜻을 모아 새로운 충혼탑을
건립하오니
순국선열들이여
안심하고 잠드소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승고한 넋은
후손에 계승되어
이 탑에 남겨졌으니...

- 충혼탑 건립문 중 -

하나의 손, 다섯 손가락

경의·중앙선 탄현역에 내려 도보로 몇 분, 도심 속에 아름답리 자리한 고양시 현충공원이 정돈된 모습으로 방문객의 발걸음을 맞이한다. 고양시 현충공원은 고귀한 생명을 나라에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빛내고 전승하기 위해 2010년 새롭게 조성된 추모 공간이다. 본래 현충탑과 태극단 묘지가 있던 지역을 2010년, 지금의 고양시 현충공원으로 재정비했다. 고양시 현충공원에 들어서면, 곧은 소나무 사이로 우뚝 솟은 현충탑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오단탑으로 이루어진 현충탑은 '하나의 손, 다섯 손가락'을 상징한다. 가운데 손가락인 정면 정상에는 순국선열 조각이 결연한 자태를 뽐내는데, 조국 수호를 다짐하는 육해공군 8인의 구국 정신을 역동적인 모습으로 형상화했다. 현충탑의 뒤로 가면 고양을 빛낸 독립운동가 74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 맞은 편에는 위패실이 자리한다. 위패실은 2010년 고양시 현충공



원 조성과 함께 준공됐으며, 한국전쟁 당시 고양군에 거주지를 둔 육·해군과 경찰 417위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현충탑을 지나 고양시 현충전시관을 향하는 길, 잘 가꿔진 묘역을 마주할 수 있다. 태극단 반공 유적지인 이곳은 태극단 묘역지로 불리기도 한다. 태극단은 6·25전쟁 발발 후, 고양, 파주지역이 공산 치하에 있을 때, 경의선 열차를 이용하던 학생들이 주축이 돼 만든 반공지하 결사대다. 학생들의 활동을 시작으로 교사, 시민들이 가세해 240여 명으로 이루어진 태극단이 조직됐다. 태극단은 철로에 화약 설치, 전기 통신선 절단, 보급로 차단 등 혁혁한 공을 세웠고, 1961년, 태극단원들의 영령이 모셔진 이곳은 반공유적지 1호로 지정됐다. 성함과 생몰연대가 각 묘에 새겨져 있으며, '조국의 자유를 위하여 싸우다 쓰러진 젊은이들 사십오위 이곳에 잠들다'라는 비문이 새겨져 있다. 매해 9월이 되면, 공산군에 의해 학살당한 태극단원들을 위한 추모제가 진행되고 있다.